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
사회통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권 구 영 (Kweon, Gu-young) *

(E-mail : gregory@mokpo.ac.kr)

논문접수일 : 2012년 3월 9일

논문심사일 : 2012년 4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2년 5월 22일

* 학위취득대학: 가톨릭대학교
현직: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
사회통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돕는 사회복지실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생태체계요인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구조에서 사회통합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자료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지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사회통합의 매개효과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는 사회통합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국제결혼 이주여성, 주관적 삶의 질, 가족관계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통합.

I. 문제제기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체계의 영향으로 '빈곤의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아시아 지역의 저개발 국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개발된 국가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이주의 여성화'를 촉발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42). 세계적으로 이주의 여성화는, 결혼을 매개로 이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4; Wang and Chang 2002, 93).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 총 결혼건수 327,715건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1.0%(36,204건)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 남편인 경우는 22.2%(8,041건)인데 반해 외국인 아내인 경우는 77.8%(28,1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08).

하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Wang 2007, 723; 양옥경·송민경 외 2009, 140). 이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단일민족의 허구적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한 피부색과 인종적 차이에 대한 차별(김재련 2007)적 구조가 심화되어 있다.

아울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특히 폐쇄적인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증가현상은 외국인을 포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체 형성되지 못한 채 양적증가 현상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여순호 2009). 전형적인 부작용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결혼을 매매혼으로 규정하고 외국 여성을 국제결혼의 희생자로 고착화함으로써 외국 여성의 행위자성을 무시한다는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윤형숙 2004).

둘째는 개인 및 가족 등의 미시적 차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주와 결혼을 동시에 선택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와 가족의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양옥경·송민경 외 2009, 140). 또한 남편과 시댁과의 가족관계에 있어서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101-102), 가족들의 지지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양옥경·송민경 외 2009, 140; 김혜자 2008, 6), 다양한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117-123).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모국의 사회지지 체계와 이미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문화적응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적절하게 대처하기 힘들다(김순규·이주재 2010, 16-17).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율이 2008년 현재 결혼건수 28,163건 중 약 28.3%(7,9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08). 이를 통해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심각한 삶의 질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주요 지표이면서(김혜자 2008, 6), 둘째 시민권 측면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누려야할 권리가기 때문이다(강희원 2007, 24-25).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혜자 2008; 양순미 2010; 양순미·최규홍 외 2009; 박정숙·박옥임 외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한 기존연구는 한국 문화 적응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Thoman and Suris 2004, 305; 박정숙·박옥임 외 2007, 10; 고자경·김정아 2009, 250-251), 배우자, 시부모, 자녀와의 갈등에 관한 연구(박정숙·박옥임 외 2007, 10; 정기선·한지은 2009, 87; 남은영·박수정 외 2010, 172; 추현화·박옥임 외 2008, 96-97),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Cohen and Syme 1985, 3; 백지은 2010, 440-442)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기존 단선적인 접근으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개인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들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하기 때문이다(권규영·박근우 2007, 190; Darling 2007, 214). 이러한 개인과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우울 등의 문제는 결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을 아우르는 개념이 생태체계 관점²⁾이다(권구영·박근우 2007, 192; 권명희 2010, 2175). 생태체계 관점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다루기 위해, 미시체계, 중범위 체계, 거시체계로 묘사되고 있다(Timberlake and Farber et. al. 2002, 22). 즉, 기존 연구결과와 생태체계 관점을 고려하면, 개인 체계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범위 체계인 가족관계 스트레스, 거시체계인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6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가족관계 개선,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국제입법조사처 2010, 19; 설동훈 2010, 148).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옥경·김연수 외 2007, 241; 보건복지부 2005, 331-338). 그 원인은 우리 사회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김태원 2010, 391), 이들을 일방적인 지원의 수혜자로 보고 피해자화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국제입법조사처 2010, 45).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그것을 해석하고, 인지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관점이라는 매개변수의 효과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최재성·강영숙 외 2009, 319). 이러한 매개변수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사회통합이다. 즉, 정책적 지원과정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사회통합감을 느끼지 못하고 차별감을 경험할 때, 원래 정책 목표했던 만큼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 통합의 정도가 높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의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 신뢰하고 안정감을 경험하게 된다(박능후 2000, 16).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제결혼

2) 생태체계 관점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다루기 위해, 일반체계, 사회체계, 생태학 개념과 과정이 결합된 일반주의 실천으로 생태체계 관점은 미시체계(개인), 중범위 체계(가족, 소집단), 거시체계(큰집단, 조직, 지역사회)로 인간과 환경체계로 묘사되고 있다(Timberlake and Farber et. al. ibid., 22).

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기본이념으로 제정하였다(이성순 2010, 167-168).

요약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인지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가족지지가 사회통합 수준을 경로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기존 연구들에서 생태체계 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은 관계의 맥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인지하는 생태체계 요인과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사회통합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기존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전략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 여성을 의미한다(김혜자 2008, 9). 즉, 이질적인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출발에서부터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15).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아름다운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결혼하지만, 현실은 좋은 며느리, 좋은 남편, 좋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요받는다(Wang 2007, 723). 아울러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국제결혼은 사랑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우자 가족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경험하게 된다(Kim 2010, 564; Wang 2007, 708). 보건복지부(2005, 117-12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36%가 최소 한 달에 한 두 차례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고, 언어적 학대 31.0%, 신체적 학대 23.1%, 성적 학대 18.4%와 같이 다양한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배우자에게 경제적 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정폭력을 겪더라도, 외부에 개입 을 주저하거나(Bui 2003, 234),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다(Wang 2007, 708). 보건복지부(2005, 15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13~14% 수준에 머무르고, 실제 이혼한 여성의 경우에도 부부 불화로 어려움이 처했을 때, 상담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경우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혜자(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 제결혼 이주여성의 56.9%가 자신의 삶의 질이 평균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삶의 질은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 의 질로 구별된다. 객관적 삶의 질 측정은 평균수명(life expectancy), 국민 중 글을 아는 사람들의 비율(literacy rate), 중위소득(median family income)과 같이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한 성과 또는 분명한 기 준을 의미한다(Andrews 1990, 2; Veenhoven 2004, 1). 이에 반해 주 관적 삶의 질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느낌에 대한 자기보 고식 반응이다(Veenhoven 2004, 1; Andrews 1990, 2). 즉 주관적 삶 의 질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평가이고, 이때 자신의 생활사건과 환 경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의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의 수준이 달라진다(Diener 1993, 107, 144).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삶의 질 중, 최근 들어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김혜자 2008; 양순미 2010; 양순미·최규 흥 외 2009; 박정숙·박옥임 외 2007). 왜냐하면, 개인의 삶의 질을 포 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삶의 질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 한 전반적인 판단인 주관적 삶의 질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Diener 1993, 107). 이러한 용이성 때문에 주관적 삶의 질은 사회적 개입 성 과를 측정하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

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주관적 삶의 질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신의 생활사건과 환 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할 때, 삶의 질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질

문화적응이란 이주 국가의 문화에 적응해 가는 변화과정을 의미한 다(Berry 1994; Morales and Lopez 2009, 336에서 재인용). 이때, 국제 결혼 이주여성은 모국의 문화와 개인적 성향·이주한 국가의 사회문 화 정책 등에 따라 문화적응 전략을 선택한다(양옥경·김연수 외 2007, 232). 그리고 문화적응 과정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적응이 필요할 뿐 아니라(Thomas 1995, 131; 남은영·박수정 외 2010, 189; 보건복지부 2005; 박재규 2009, 141-145), 법적 지위에 대한 모호함(Finch and Vega 2003, 115; 국제입법조사처 2010, 62)과 다양한 차별(Morales and Lopez ibid., 343; 박형원 2010, 3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102)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결 혼 이주여성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문화적 응 스트레스라고 한다.

실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2007 테마기획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통합전문위원회(2009, 45, 60, 9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중간 이상이고,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관 련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으며, 아울러 7.6%만이 자신을 한국인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 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가 자신의 능력을 초과할 때 고통(destres- s)을 경험하게 되고(Hamer and Wolvers et. atl. 2004, 639), 이는 우 울증(Ji and Duan 2006, 241; 양옥경·송민경 외 2009, 160; 박형원 201 0, 315)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 생리학적 증상, 걱정증후군과 같은 불안증상의 원인이 된다(Morales and Lopez, ibid., 343). 특히 국제결

혼 이주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자국의 문화와 개인적 지지망이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Thomas 1995, 15). 이와 같은 요인으로 다양한 연구에서(Thoman and Suris 2004, 305; 박정숙·박옥임 외 2007, 10; 고자경·김정아 2009, 250-251; 정기선·한지은 2009, 87)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가족관계 스트레스란 가족체계내의 긴장과 압력을 가족 구성원이 인지하는 정도이며,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으면 가족의 안정된 상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Boss 1988; 유명숙 2010, 148에서 재인용; 389).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단순히 한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결합되어 발생한다(Lau and Yung et. al. 1997; McKelvey and Fitzgerald et. al. 2002; Barnett 2008). 여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보고서에서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배우자로 부터 폭력을 경험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47.7%로, 한국가족의 부부폭력 발생률(40.4%)과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국제입법조사처 2010, 62). 특히, 현재 이혼을 했거나 별거중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혼이나 별거 1년 전부터 남편으로부터 성행위 강요(40%), 신체적 폭력(50% 이상), 언어 폭력(거의 70~80%)과 같은 다양한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05: 124). 이러한 폭력의 원인으로 권명희(2010, 2175-2191)의 연구결과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박재규(2009, 141-146)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24.7%와 16.5%가 사고방식(문화적 차이)과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건복지부(2005, 122)의 연구결과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갈등은 때

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부부간의 신뢰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부관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조사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배우자, 자녀, 시부모, 경제, 건강과 같은 다양한 가족관계 스트레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 경제, 건강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정숙·박옥임 외 2007, 10; 정기선·한지은 2009, 87; 남은영·박수정 외 2010, 172; 추현화·박옥임 외 2008, 96-97).

4.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낄 때, 사회구성원으로 부터 정서적(Uchino and Kiecolt-Claser 1996, 521-525), 물질적(Schetter and Folkman et. al. 1987, 77), 정보적 지지(추현화·박옥임 외 2008, 94)를 받고, 이를 통해서 대처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Fondacare and Moos 1987, 669-671; Sarason and Levine et. al. 1983, 128, 131; 김오남 2007, 57). 이때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관심(연계, 사랑, 공감), 물질적 원조(물건 및 서비스), 정보제공(환경 관련), 평가(자기 평가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같은 요인들은 하나 이상의 대인 관계적 상호작용을 거치게 된다(House 1981, 39).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개인의 인지적 평가(Fondacare and Moos, 1987, 669-671)가 긍정적일 때 사회적지지 수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다수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자신이 고국에서 누리던 가족 및 친구들로부터 사회적지지체계가 이미 단절 또는 상실된 데다, 남편과 그 가족 외에 한국 내 사회관계망은 부족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막한 상태라 할 수 있다(박미정·엄명용 2009, 3).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58.9%가 이웃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참여하는 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53.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재규 2009, 141-146). 특히 국제입법조사처(2010, 62)에 따르면, 2009년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약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74%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정부의 국적취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주요한 요인으로 논의(Cohen and Syme 1985, 3; 백지은 2010, 440-442)되고 있고, 실제 사회적 지지수준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aalen and Sanders et. al. 2005, 54; 고자경·김정아 2009, 250-251).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만나게 된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과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유한 자원을 비롯하여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이해할 있다(박재규 2009, 141; 박미정·엄명용 2009, 5).

5. 사회통합의 매개효과

정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은 사회통합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 사회통합이란 개인들을 사회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가 서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노대명 2009, 8; 김경옥 2010, 39). 따라서 폭넓은 사회관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Brissette and Cohen et. al. 2000, 54),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귀속감을 느낄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수준이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노대명 2009, 6). 이러한 사회통합이 옳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사회 구성원들은 해당 사회의 제도와 관행에 대해 신뢰를 가지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박능후 2000,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25; Brissette and Cohen et. al. 2000, 55).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성순 2010, 167-168; 국제입법조사처 2010, 19). 우리나라 사회통합은 초기 동화주의³⁾에 입각하여 정책지원을 추진하다가,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지원으로 전환하였다(최현실 2009, 36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4). 상호주의에 입각한 사회통합은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성원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상태이고, 제도적으로는 상호성을 기초로 한 법과 제도가 마련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최현실 2009, 345).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즉, 문화적응, 가족관계 개선,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상호주의 관점에 입각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56-57). 종합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생태체계요인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간의 관계의 맥락에서 사회통합이 매개변수로 고려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생태체계 요인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Thoman and Suris 2004; 박정숙·박옥임 외 2007; 고자경·김정아 2009; 정기선·한지은 2009; 박정숙·박옥임 외 2007; 정기선·한지은 2009, 남은영·박수정 외 2010; 추현화·박옥임 외 2008; Cohen and Syme, 1985, 백지은 2010), 사회통합을 매개 4)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3) 동화주의는 다문화만 이해하는 정도에서, 해당 이민국가의 언어, 문화, 가치관, 행동양식을 수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4)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선행연구(김경옥 2010, 116-117; Voydanoff 2005, 673; 최윤정 2010, 279; 신은경·최정아 2007, 15; 임성옥·이숙자 2008, 447)와 사회통합 수준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달라진다고 보고된 선행연구(최재성·강영숙 외 2009, 330; 임성옥·이숙자 2008, 447)를 고려할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태체계요인과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사회통합의 매개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일부 연구(최

고되고 있기도 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 때 비로소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인지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사회통합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앞서 검토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제성·강영숙 외 2009, 330; 최윤정 2010, 279)에서 사회통합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내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접촉은 전라남도 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등록 회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라남도 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22개시군 가운데 13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외의 9개 지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응하는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설문조사 시 제기되는 문제는 언어적 편차에 의한 오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제작한 후, 훈련된 조사원이 1:1 면접 설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설문지의 번안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언어적 설명과정에서의 오차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조사의 한계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집중 훈련을 실시하고, 조사원을 가능한 해당 언어 전공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0년 12월 한 달 간이었으며, 모두 25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이승

중(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산두와 아스라바디(Sandhu and Asrabadi, 1994)의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척도를 이용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7개 요인(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미워함, 두려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 기타)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모델의 적합도에 영향을 미치는 2개 요인(향수병, 죄책감)이 제외되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승중(1995)의 연구에서 제시된 척도의 신뢰도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93이었다.

2) 가족관계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가족체계내의 긴장과 압력을 가족 구성원이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최동희(1990)가 맥쿠빈과 윌슨(McCubbin and Wilson et. al 1979) 등과 김양희(1987) 등의 연구를 기초로 구성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가족관계 스트레스 척도는 5개요인(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건강관련 요인, 경제 관련 요인),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2개요인(건강관련 요인, 경제 관련 요인)이 제외되었다.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동희(1990)의 연구에서 제시된 척도의 신뢰도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87이었다.

3) 사회적지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 115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낄 때, 사회구성원으로 부터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지를 받고, 이를 통해서 대처전략에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윤영주(2001)가 박지원(1985)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지지척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형태의 27문항을 21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와 같은 4개요인,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영주(2001)의 연구에서 제시된 척도의 신뢰도는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96이었다.

4) 사회통합

사회통합은 개인들을 사회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사회통합 척도는 백은령(2003)이 세갈과 아비람(Segal and Aviram 1978) 연구의 Social Integration Scale과 윌러(Willer 1993)의 Community Integration Questionnaire를 본 연구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백은령(2003)의 연구에서는 내부통합 척도와 지역사회지향의 외부통합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외부통합 척도를 활용하였다. 사회통합 척도는 5개요인(존재, 소비, 접근, 참여, 생산),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2개요인(존재, 접근)이 제외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통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백은령(2003)의 연구에서 제시된 척도의 신뢰도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71이었다.

116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5집

5) 삶의 질

삶의 질은 자신의 생활사건과 환경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삶의 질 측정도구는 이명신(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캠프벨(Campbell)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Index of Well-Being)를 사용하였다. 삶의 질 척도는 행복감(8문항)과 생활만족도(단일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감은 7점 척도로 이루어진 짝진 형용사의 어느 한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예, 재미있는 1 2 3 4 5 6 7 지루한). “자신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을 묻는” 생활만족도 척도는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의 측정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삶의 질로 합산하는 과정에서는 측정된 점수를 표준점수(Z점수)로 변환하고, 생활만족도에는 1.1의 가중치를 주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명신(1998)의 연구에서 제시된 척도의 신뢰도는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94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설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패키지(AMOS 18.0, SPSS 17.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각 변수의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MIN/값($p>0.05$), CMIN/DF(2이하), NFI = 0.9 이상, TLI = 0.9 이상, CFI= 0.9 이상, RMSEA = (0.05이하: 좋다, 0.05~0.1이하 수용가능)일 때,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만

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송지준 2010).

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응답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45.7%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36.4%, 40대 이상 17.8%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100만 원 이상 ~ 150만원 미만인 33.7%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 원 이상 36.4%, 150만 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이 19.0%, 100만원 미만이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졸업 이상이 26.4%, 중학교 졸업이 23.3%, 초등학교 졸업이 4.3% 등의 순이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N=258명)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대	20대	118명	45.7%
	30대	94명	36.4%
	40대 이상	46명	17.8%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150만원	28명	10.9%
	미만	87명	33.7%
	150만원 이상 - 200만원	49명	19.0%
	미만	94명	36.4%
	200만원 이상		
교육 수준	무학	2명	0.8%
	초등학교 졸업	11명	4.3%
	중학교 졸업	60명	23.3%
	고등학교 졸업	117명	45.3%
	대학 졸업 이상	68명	26.4%

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측정변인 기술통계

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 (점수범위)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지각된 차별감	2.68(1점~5점)	.73	-.271	-.526
	지각된 미워함	2.32(1점~5점)	.72	.071	-.437
	두려움	2.32(1점~5점)	.74	.022	-.399
	문화적충격	2.95(1점~5점)	.79	-.285	-.412
	기타	2.84(1점~5점)	.67	-.216	-.022
가족관계 스트레스	남편과의 관계	2.47(1점~5점)	.77	-.117	-.158
	자녀와의 관계	2.20(1점~5점)	.91	-.247	-.299
	시부모와의 관계	2.39(1점~5점)	1.02	.275	-.350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3.50(1점~5점)	.71	-.170	-.178
	물질적 지지	3.34(1점~5점)	.69	-.156	-.033
	정보적 지지	3.42(1점~5점)	.75	-.179	-.245
	평가적 지지	3.45(1점~5점)	.70	-.140	-.277
사회통합	존재	2.10(1점~5점)	.94	.660	-.195
	참여	2.62(1점~5점)	.65	.290	.605
	생산	2.85(1점~5점)	1.50	.007	-1.360
삶의 질	행복감	4.77(1점~7점)	1.27	-.204	-.608
	생활만족도	3.40(1점~5점)	.83	-.097	-.02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점수범위가 1~5 점 사이에서 문화적 충격이 2.95점(SD .79)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타 2.84점(SD .67), 지각된 차별감 2.68점(SD .73), 지각된 미워함 2.32점(SD .72), 두려움 2.32점(SD .74)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관계 스트레스는 점수범위가 1~5점 사이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2.47점(SD .77)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녀와의 관계 2.20점(SD .9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 119

시부모와의 관계 2.39점(SD 1.02)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3.50점(SD .71), 평가적 지지 3.45점(SD .70), 정보적 지지 3.42점(SD .75), 물질적 지지 3.34점(SD .69)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은 점수범위가 1~5점 사이에서 생산 2.85점(SD 1.50), 참여 2.62점(SD .65), 존재 2.10점(SD .94)으로 조사되었다. 삶의 질의 경우 행복감은 1~7점 사이에서 4.77점(SD 1.27), 생활만족도는 1~5점 사이에서 3.40점(SD .83)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김대업(2009: 104)이 제시한 정규분포 기준을 고려했을 때,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대부분 1 이하로 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규성을 충족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1) 측정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X^2=238.786$, 자유도 106,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가설이 모집단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X^2 값은 사례수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지수를 중심으로 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NFI=.913, TLI=.935, CFI=.905, RMSEA=.070으로 나타나, 본 측정모형의 적용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X^2	df	p	N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238.786	106	.000	.913	.935	.905	.070

120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5집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의 관계로 제시되는 추정치는 요인적재량으로 해석되며,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은 유의 수준 .001~.004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여, 적합도 측정 모형의 지수와 분석결과를 근거로, 구조모형의 분석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문화적응 스트레스	지각된 차별감	0.907	0.904	0.045	20.056	***
	지각된 미워함	0.514	0.829	0.03	17.16	***
	두려움	0.407	0.803	0.025	16.272	***
	문화적충격	0.264	0.654	0.022	11.892	***
	기타	1	0.870			
가족관계 스트레스	남편관계	0.735	0.730	0.079	9.258	***
	자녀관계	0.696	0.569	0.089	7.796	***
	시부모관계	1	0.73			
사회적 지지	정서적지지	0.792	0.972	0.047	16.801	***
	물질적지지	1.169	0.894	0.053	22.106	***
	정보적지지	1.316	0.829	0.05	26.361	***
	평가적지지	1	0.896			
사회 통합	존재	1.465	0.744	0.294	4.981	***
	참여	1.247	0.229	0.427	2.919	0.004
	생산성	1	0.639			
삶의 질	행복감	1.079	0.800	0.11	9.81	***
	생활만족도	1	0.749			

*p< .05, **p< .01, ***p< .001

2) 구조모형 분석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지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수준이 사회통합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5>과 같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 해 본 결과, $X^2=252.865(p=.000)$, NFI=.908, TLI=.928, CFI=.944, RMSEA=.07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X^2 값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X^2	df	p	N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252.865	106	.000	.908	.928	.944	.073

구조모형 분석결과 <표 6>과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사회통합, 사회적지지 → 사회통합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각각 -0.331, -0.321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울러 사회통합 → 삶의 질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184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아울러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삶의 질, 가족관계스트레스 → 삶의 질, 사회적지지 → 삶의 질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252, -0.45, 0.229로 조사되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사회통합 간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표 6>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사회통합	-0.076	-0.331	0.026	-2.96	0.003
가족관계 스트레스 → 사회통합	0.067	0.203	0.044	1.527	0.127
사회적지지 → 사회통합	-0.142	-0.321	0.04	-3.56	***
사회통합 → 삶의 질	0.1	0.184	0.051	1.964	0.05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삶의 질	-0.031	-0.252	0.013	-2.459	0.014
가족관계스트레스 → 삶의 질	-0.08	-0.45	0.022	-3.609	***
사회적지지 → 삶의 질	0.055	0.229	0.019	2.861	0.004

*p< .05, **p< .01, ***p< .00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사회통합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표 7>에 보다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대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통합을 매개로 하여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로계수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통합을 매개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수는 $-0.061(-0.331 \times 0.184)$ 이었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경우 경로계수는 $-.252$ 로 조사되었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을 매개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 123

$-0.059(-0.321 \times 0.184)$ 이었고,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경우의 경로계수는 $.229$ 로 나타났다.

<표 7>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통합	-.331	.000	-.331
	삶의 질	-.252	-.061	-.313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	-.321	.000	-.321
	삶의 질	.229	-.059	.170
사회통합	삶의 질	.184	.000	.184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숙한 시민성을 기반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질적인 삶에 접근하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지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사회통합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지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사회통합 매개효과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사회통합 매개효과를 통해서는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조사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인지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 관계(Thoman and Suris 2004, 305; 박정숙·박옥임 외 2007, 10; 고자경·김정아 2009, 250-251; 정기선·한지은 2009, 87)에서 사회통합 매개효과(김경옥 2010, 116-117; Voydanoff 2005, 673; 최윤정 2010,

124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5집

279; 신은경·최정아 2007, 15; 임성욱·이숙자 2008, 447; 최재성·강영숙 외 2009, 330; 임성욱·이숙자 2008, 447)를 가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정체감과 이주사회의 문화정체감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통합 수준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더욱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양옥경·송민경 외 2009, 163-164).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간 관계(Daalen and Sanders 2005, 54; 고자경·김정아 *ibid.*)에서 사회통합 매개효과(김경옥 *ibid.*; Voydanoff *ibid.*; 최운정 *ibid.*; 신은경·최정아 *ibid.*; 임성욱·이숙자 *ibid.*; 최재성·강영숙 *ibid.*; 임성욱·이숙자 *ibid.*)를 가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사회통합 수준이 정적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적 영향관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이성순 2010, 167-168).

하지만 정부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의 법적 개념이나 내용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한 실정이다(차용호 2008, 143; 이성순 *ibid.*, 184). 특히 정부의 각 부처들도 사회통합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 정책의 집행에만 치중하고 있고,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일반 국민들에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차용호 *ibid.*). 이에 따라 상호주의 관점의 사회통합보다는 실제 문화적 배경, 언어, 생활관습, 역할기대와 관계형성에 대한 차이는 무시된 채 주류사회의 동화에 초점이 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동화주의 관점에 입각한 사회지지 체계로 인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지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 관계는 유의한 영향(Daalen and Sanders et. al. 2005, 54; 고자

경·김정아 *ibid.*)을 미치지만, 사회통합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관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만, 사회통합을 통해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정서적 측면 즉, 주관적 삶의 질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정체감과 이주사회의 문화정체감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통합 수준으로는 관리 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사회통합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을 정책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내용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 추진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일관성 있게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에 대한 법적개념, 내용에 대한 법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상호주의 관점에 입각한 사회통합은 상대에 대한 포용과 이해가 기반을 둔 시민 사회적 근간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간에 대한 변화 없이 국제결혼 이주여성과의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구라 할 수 있다(강휘원 2007, 29). 이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에 대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식개선 교육이나, 문화교류가 필요하다.

셋째, 현행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 적응의 전체가 한국어 구사 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Wrobel and Farrag et. al. 2009, 285),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어를 쉽게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교실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인교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제언들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시민 개개인의

참여와 동의가 있을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근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호주 등과 같이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채택하였던 정책적 노력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이를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노력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노력이 그 바탕이 되어야 실행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수준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인지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과 영향력을 밝힌 최초의 연구로써 향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천적, 정책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전국단위의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일정 시점에서의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본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 간 변화를 측정하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수준을 증진시키는 동화주의 관점과 상호주의 관점에 입각한 사회적 지지 체계 간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강휘원, 2007,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용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pp. 5-34.
- 고자경·김정아, 200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국제입법조사처, 2010,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서울: NARS 정책보고서.
- 권구영·박근우,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14(2) pp. 187-219.
- 권명희, 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공동학술대회, pp. 2174-2197.
- 김경옥,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대업, 2009,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경기: 학현사.
- 김순규·이주재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pp. 5-20.
- 김오남,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3) pp. 47-73.
- 김태원, 2010, “다문화현상에 대한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44 pp. 389-423.

김현숙, 2006, “부산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16(1) pp. 163-176.

김혜자,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1) pp. 5-11.

남은영·박수정·김영빈, 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여가와 문화적응의 탐색”, 『교육문화연구』, 16(1) pp. 169-195.

노대명, 2009,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50 pp. 6-19.

박근우, 2007, “생태체계적 요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능후, 200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보건복지포럼』, 40 pp. 16-24.

박미정·엄명용,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pp. 1-26.

박재규, 2009, “경기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생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효과 분석”,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사회학대회』, pp. 137-154.

박정숙·박옥임·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pp. 59-70.

박형원, 2010, “해외이주 한인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8) pp. 308-316.

백은령, 2003,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요인과 사회통합정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

백지은, 2010,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 경험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pp. 425-445.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2007 테마기획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통합전문위원회, 2009,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적응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설동훈, 2010, “한국의 다문화제도화 방안;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기금 제도의 국제비교”, 『민족연구』, 44 pp. 145-161.

송지준, 2010,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 21세기사.

신은경·최정아, 2007,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척추손상장애인의 사회통합 영향요인”, 『재활복지』, 11(4) pp. 1-29.

양순미, 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20(1) pp. 233-263.

_____, 2009,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사회참여활동 실태 및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 농업, 지역사회, 취업활동 중심으로”, 『농촌 지도와 개발』, 16(4) pp. 713-742.

양옥경·송민경·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pp. 137-168.

유명숙, 2010, “임파워먼트 모델에 근거한 다문화 부부옹호 프로그램이 다문화부부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처방식 및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4(2) pp. 145-160.

윤영주, 2001,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명신, 1998, "근로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그 영향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성순, 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21(4) pp. 165-187.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 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성욱·이숙자, 2008, "지체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9(2) pp. 469-483.

정기선·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pp. 87-114.

차용호, 2008,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이민학회 2008년 정기학술대회』

최동희, 1990, "주부가 갖는 스트레스와 시부모부양행동",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윤정, 2010,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지역사회통합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pp. 252-288.

최재성·강영숙·김진욱, 2009,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사회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pp. 309-341.

추현화·박옥임·김진희·박준섭 2008,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4) pp. 85-101.

통계청, 2008, 2008년 혼인통계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국제결혼가족의 결혼·출산 형태와 정책방안』 .

_____, 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질,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해를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I):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방안(총괄보고서)』 .

Andrews, F. M., 1990, "Stability and Change in Levels and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USA 1972 and 1988", *Social Indicators Research*, 25(1), pp. 1-30.

Barnett, M. A., 2008, "Economic Disadvantage in Complex Family Systems: Expansion of Family Stress Model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1(3), pp. 145-161.

Bissette, I., Gohen, S. and Seeman, T. E. 2000, "Measuring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Networks", in: Underwood, L. and Gottlieb, B eds.,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s: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New York: Oxford.

Bui, H. N. 2003, "Help-Seeking Behavior Among Abused Immigrant Women: A Case of Vietnamese American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9(2), pp. 207-239.

Cohen, S. and McKay, G. 1984, "Social Ssupport, Stres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A Theoretical Analysis", in: Baum, A., Taylor, S. E. and Singer, J. E.,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Hillsdale: NJ.

- _____, 2000,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 Cohen eds.,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aalen, Sanders and Willems 2005, "Sources of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Health,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Among Dutch Male and Female Dual-Earners", *Journal of Women & Health*, 41(2), pp. 43-62.
- Darling, N. 2007, "Ecological Systems Theory: The Person in the Center of the Circle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4(3-4), pp. 203 - 217.
- Diener, E. 1993,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pp. 103-157.
- Dunkel-Schetter, C., Folkman, S. and Lazarus, R. S., 1987, "Correlates of Social Support Recei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1), pp. 71-80.
- Fondacaro, M. R. and Moos, R. H. 1987, "Social Support and Coping: A Longitudin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5(5), pp. 653-673.
- Hamer, M., Wolvers, D., Albers, R. 2004. "Using Stress Models to Evaluate Immuno-modulating Effects of Nutritional Intervention in Healthy Individuals".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23(6), pp. 637-646.
- House, J. S. 1982,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Addison-Wesley.
- Ji, P. and Duan C., 2006, "The Relationship Among Acculturation,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on for a Korean and a Korean - American Sample", *Asian Journal of Counselling*, 13(2), pp. 235 - 270.
- Kim, G. S., Cho, W. J., Lee, C. Y., Marion, L. N. and Kim, M. J. 2005, "The Relationship of Work Stress and Family Stress to the Self-Rated Health of Women Employed in the Industrial Sector in Korea", *Public Health Nursing*, 22(5), pp. 389-397.
- Kim, H. S., 2010, "Social Integration and Health Policy Issues fo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Public Health Nursing*, 27(6), pp. 561 - 570.
- Lau, B. W. K., Yung, P. M. B., Mak, J. W. H. and Wallace, J. M. 1997, "An Epidemiological Study on Work and Family Stress among Chinese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4(2), pp. 101-109.
- McKelvey, L. M., Fitzgerald, H. E., Schiffman, R. F. and Eye, A. V., 2002, "Family Stress and Parent - Infant Interaction: The Mediating Role of Coping",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3(1-2), pp. 164 - 181.
- Sarason, I. G., Levine, H. M., Basham, R. B., and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pp. 127-139.
- Suarez-Morales, L. and Lopez, B. 2009,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and Daily Hassles on Pre-adolescent Psychological Adjustment: Examining Anxiety

- Symptoms”,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0(3-4), pp. 335-349.
- Thoman, L. V, and Surfs, A. 2004,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Quality-of-Life Functioning in Hispanic Psychiatric Pati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6(3), pp. 293-311.
- Thomas, T. N. 1995, “Acculturative Stress in the Adjustment of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Social Distress and the Homeless*, 4(2), pp. 131-142.
- Timberlake, E. M., Farber, M. Z, and Sabatino, C. A., 2002, *The General method of social work practice: McMahon’s generalist perspective*, Boston: Allyn and Bacon.
- Uchino, B. N., Cacioppo, J. T. and Kiecolt-Glaser, J. K.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hysiological Processes: A Review with Emphasis on Underlying Mechanisms and Implications for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19(3), pp. 488-531.
- Veenhoven, R. 2004,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 Voydanoff, 2005, “Social Integration,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and Job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pp. 666-679.
- Wang, H. Z. 2007, “Hidden Spaces of Resistance of the Subordinated: Case Studies from Vietnamese Female Migrant Partners in Taiwa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1(3), pp. 706-727.
- _____, 2002, “The Com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Cross-border Marriage Business in Taiwan and Viet Nam”, *International Migration*, 40(6), pp. 93 - 116.
- Wrobel, N. H., Farrag, M. F. and Hymes, R. W. 2009,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in an Elderly Arabic Sample”,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4(3), pp. 273-290.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towards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for Foreign
Wive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Integration

Kweon, Gu-young
(Mokpo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chanism through which ecological factors with regards to foreign wives impacts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We we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integr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process-related outcom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the use of a survey instrument completed by 258 individual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demonstrated a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with regards to foreign wives.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as well as further research topics were discussed to aid the search for highly effective interventions.

Keywords : Foreign Wife, Subjective quality of life, Family stress, Acculturation stress, Social support, integration